

“해남 지역경제를 살리자”… 활성화 전략 ‘가속도’

60개 사업에 485억 투입…분야별 대응 시책 총력
명현관 군수 “공공 선도 역할…활력 불어 넣어야”

해남군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 부서의 역량을 결집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보고회를 갖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안을 분야별로 조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책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소·읍면별

발굴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일자리창출,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취약계층 복지 지원, 범군민 소비촉진 전개 등 5개 영역에서 총 60개의 핵심사업을 확정하고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 완화·경감·면제·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군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로컬이 살



해남군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보고회를 갖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안을 분야별로 조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야 지역이 산다’를 목표로 범군민 캠페인을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함께 해 지역상이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경제기업 구매 활성화, 누리관개망

(SNS) 홍보하기 등 체험형 경제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들도 조기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1000억 원대 지속 발행과 연중 할인판매 확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착한가 격업소 확대,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 구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노인, 중장년, 장애인 일자리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먹거리 바우처와 에너지 요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농수축산 분야 중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7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또 중소농 농자재 반값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자재지원사업 등도 상반기에 모두 추진하고, 문화예술, 축제,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

훈련 유치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숙박·음식·관광 등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도 대상액의 65%까지 높여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국내외 여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짐에 따라 조기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분야별 발굴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활력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목포, 평화광장 일원 문화·관광 사업 박차

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목포시가 하당과 평화광장 일원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정주·안전분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 열린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에서 하당권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12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도심 핵심 생활권인 하당권역과 갯바위권역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정주·안전 분야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하당과 평화광장 일원을 중

심으로 문화·관광 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주요 사업은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지원, 목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갯바위 지방정원 조성, 평화광장 해양레저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 유아숲놀이체험원 조성,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육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등 도심 이용 편의증진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주·안전 분야 사업 추진 상황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목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당권역 주요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하당권역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한 만큼 사업 간 조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단위 점검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와 도시 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호심 답아 어르신들 위한 빨래방 문 열었어요” 강진군은 최근 도암면사무소에서 ‘도암면 호심이 빨래방’ 준공·개소식을 가졌다. ‘호심이 빨래방’은 고령사랑기금을 활용한 호심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이불 등 대형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강진군

영암, 추모·기억 복합문화공간 현충공원 착공

영암읍 교동지구에 건립…상반기 준공 목표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교동지구에서 지역 보훈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현충공원 착공식’을 열고, 국가유공자 등을 기리는 추모·기억의 공간 조성에 착수했다.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추모·기억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일대에서 북돋을 수 있는 경관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족과 참배객들의 이동·접근 편의성도 높인다.

현충공원은 4869㎡ 부지에 총사업비 23억4000만원을 들여 총현탑과 기억의 벽, 기념광장,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다.

영암군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보훈단체 회원,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안전관리 강화, 주변 불편 최소화 등 만전을 기해 건립을 마치고 영암군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충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되는 공간이다”며 “영암군민 누구나 찾고 기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다양한 영암군민 참여 추모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2027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 ‘새청무’

선정 심의회서 단일품종 확정

강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최종 선정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 매입 품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새청무를 매입품종으로 결

정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의회, 농업인단체, 농협, RPC,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해 품종 선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의회에서는 새청무를 비롯해 조명1호, 영호진미, 신동진 등 여러 후보 품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새청무 단일 품종 재배에 따른 연작 피해와 병해충 발

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2품종 도입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2품종 후보로는 조명1호가 검토됐지만 조생종벼인 조명1호는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종자원에서의 안정적인 종자 보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돼 선정되지 않았다.

강진군은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특수미인 미호벼 고품질쌀 육성에 집중해 농가소득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강진=이진득 기자 sa432252@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